**한글 새 문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입력 2010-02-22

한글 새 문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글을 발전시켜 세계화하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글 새 글자는 꼭 필요하다.

 수년전 ‘영어 못하는 영어 공화국’이라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새롭다.(2007년 5월 2일 조선일보 A3면)

 일 년에 무려 15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TOEFL이나 TOEIC 시험에서 세계 147개국 가운데 111위까지 떨어졌으며 특히 말하기 부문만 보면 134위로 거의 꼴찌에 가깝다는 내용이었다.

 그처럼 성적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첫째는 교실 밖에서는 영어를 쓰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는 실용 회화 교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것은 빗나간 지적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영어 발음에 지극히 취약하다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어느 나라 말이든 모두 그 발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해마다 수많은 학생들이 조기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떠나는 것은 이 땅에서 수년을 영어 공부에 매달려도 올바른 영어를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올바른 영어 발음을 배우기 위해 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file을 [파일]이라고 발음하므로 상대방은 pile로 알아듣고 있으며, leader를 [리더]로 발음하고 있으니 역시 reader로 알아듣는 것이다.

 더구나 banana의 영어 발음은 [버내너]인데 우리는 일본식 [バナナ(바나나)]를 그대로 본떠 [바나나]로 발음하고 있다.

 말썽 많았던 orange도 미국식 발음은 [오-린쥐]와 [아륀쥐] 두 가지로 발음되며, 영국식 발음은 [오륀쥐]인데 이것도 우리는 일본식 [オレンジ(오렌지)]를 본떠 [오렌지]로 표기하고 발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립국어원에서는 summer라는 영어를 [썸멀]가 아닌 [서머]가 옳으며 이것은 우리말이고 [썸멀]는 외국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외래어(?)라는 것은 외국어가 적당한 우리말이 없어서 빌려 쓰는 말이다.

 외래어라는 학술용어는 일본말이며 일본에서조차 외래어는 외국어라고 정의하고 있고, 북한 국문학계에서조차 외국어로 정의하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로지 우리나라 국문학계에서만 우리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한심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나나]는 우리말이고 [버내너]는 외국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국문학계 정설이다.

 이와 같이 일상용어를 일본식 발음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발음으로 생활하고 있으니 교실 밖에서 영어를 아무리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런 사회 환경에서는 영어 공부를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하더라도 올바른 발음을 구사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36년이라는 세월을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도 우리 국문학자들이 광복 후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나 용비어천가(龍飛御天歌)와 같은 우리 고유 국문학을 연구하여 발전시킬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사대(事大)에 젖어 오로지 일본 국문학이나 서양 국문학을 번역하여 이것을 우리 국문학인양 치장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특히 직접적인 원인은 현행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것이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촉진제가 되고 있다.

 현행 <한글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은 일본 총독부의 감시 아래에서 만들어진 일제의 잔재이다.

 <한글 맞춤법> 제1항에서는 자모의 수를 40개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정신을 크게 훼손하여 약 400억 개의 소리글자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 것이다.

 50개의 자모가 있는 일본 글자보다 뒤떨어지는 글자로 보이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두음법칙(頭音法則)이라는 전근대적인 규정은 우리로 하여금 [ㄹ]의 발음기관을 퇴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소리는 완전하게 닮지는 않았지만 [r]에 대한 발음을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두음법칙(頭音法則)을 적용하지 않는 북한 사람들은 첫소리 [ㄹ]에 대한 발음이 숙달되어 [r]에 대한 발음이 비교적 우리보다 월등히 정확하다.

 또한 <한글 맞춤법>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소리글자인 한글을 뜻글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한글은 소리글자인 동시에 뜻을 함께 나타내는 글자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더욱 우리들의 외국어 발음을 그르치는 규정이 많다.

 제1항을 보면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한글 맞춤법>의 40 자모보다 무려 16 자모가 부족한 것으로 도저히 외국어 발음을 표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제3항에서는 끝소리글자인 받침을 ‘ㄱ, ㄴ, ㄷ, ㅂ, ㅅ, ㅇ’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더욱 가관인 것은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실상은 파열음이 아닌 것도 된소리를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예로 든 summer를 보면 [ㅅ]은 파열음이 아니라 마찰음이다.

 그런데도 [썸멀]라고 하지 못하고 [서머]로 표기하고 발음해야하는 것이다.

 제5항은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라고 하여 아무리 잘못된 표기이거나 일제의 잔재라도 고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므로 [뉴스],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일제의 잔재인 잘못된 발음도 현실에 맞도록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소리 과학인 한글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위에서와 같은 모순을 시정하여 백성들에게 올바른 외국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한글 새 글자는 꼭 필요한 것이다.

 지금 국문학자들은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고 국문학자가 아닌 의학자, 경제학자, 영문학자나 일부 일반 백성들이 새 글자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날이 거세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문학계에서는 마이동풍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떠받들고 있는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며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미온적인 국문학계에 대해서 오죽이나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다른 분야의 학자나 일반 백성들이 새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겠는가?

 지난달 울산의대 이 인철 교수는 [f, v, z, r, th]에 대한 글자를 제안하였다.(2010년 1월 12일 조선일보 A33면)

 이 교수는 한글의 자모가 아닌 이상한 기호를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국립 국어원 조남호 어문 연구실장의 반대 발언에 대응하지 못하는 처사이다.

 그와 같은 이상한 모양의 글자는 조남호 어문 연구실장이 우려한 대로 한글에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새로운 활자를 만들어야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이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사회적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행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폐기하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정신을 마음껏 살려 새로운 <한글 맞춤법>과 <빌린 말 표기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세종대왕은 어제훈민정음(御製訓民正音)에서 「ㅇ連書脣音之下(ㅇ연서순음지하), 則爲脣輕音(즉위순경음). 初聲合用則竝書(초성합용즉병서). 終聲同(종성동)」이라 하여 연서(連書)와 병서(竝書) 규칙을 만들어 놓았다.

 즉 「ㅇ을 입술소리 아래에 쓰면 입술가벼운소리가 된다. 첫소리를 합쳐서 쓰려면 나란히 쓴다. 끝소리도 이와 같다.」이다.

 또한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 합자례(合字例)에는 「初聲二字三字合用竝書(초성이자삼자합용병서), (중략) 中聲二字三字合用(중성이자삼자합용), (중략) 終聲二字三字合用(종성이자삼자합용)」이라 하여 첫소리, 가운뎃소리, 끝소리는 모두 두 글자 혹은 세 글자까지 나란히 써서 하나의 소리글자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병서(竝書) 규칙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같은 글자를 두 개나 세 개를 나란히 쓰는 각자병서(各字竝書)와 서로 다른 글자를 두 개 혹은 세 개를 나란히 쓰는 합용병서(合用竝書)로 나뉜다.

 각자병서(各字竝書)는 된소리를 나타내는데 쓰는 규칙으로 우리는 지금 쓰고 있다.

 합용병서(合用竝書)는 우리 말속에 없는 새로운 소리를 적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비규칙이다.

 즉 우리말 속에 없는 새로운 소리인 [f, v, l, ð, Ɵ] 등과 같은 소리글자가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 합용병서(合用竝書)를 활용하여 만들어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가 영어 발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글자는  [f, v, l, ð, Ɵ]의 소리글자이다.

 여기에서 [f]는 [ph=f]라는 공식을 이용하여 [ㅍㅎ=f]로 하여 [ㅍㅎ]의 합용병서(合用竝書)를 활용하면 간단히 문제는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v]는 [ㅂㅎ=v]로, [ð]는 [ㄷㅅ= ð]로, [Ɵ]는 [ㅌㅅ=Ɵ]로 다른 이상한 기호를 쓰지 않더라도 모두 합용병서(合用竝書)로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다.

 [l]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ㄹ]은 [r]과는 그 소리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며 훈민정음(訓民正音)에서는 반혓소리로 정의되어 있다.

 [l]은 혀끝을 입천장에 대었다가 강하게 튕기면서 내는 소리로 [ㄹ]의 된소리로 혓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1/2 혓소리 + 1/2 혓소리 =혓소리)라는 수학공식을 이용하여 [ㄹ + ㄹ = ᄙ]로 각자병서(各字竝書)를 활용하여 [l]의 글자로 쓸 수 있다.

 이상에서 든 다섯 가지 합용병서(合用竝書)와 각자병서(各字竝書) 글자들은 대한제국시대의 문서로 추정되는 문서에서 실제로 활용되었던 기록에 따른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합용병서(合用竝書)와 각자병서(各字竝書)를 활용하면 사람의 말소리라면 모두 적을 수 있는 글자가 바로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한글인 것이다.

 이 병서(竝書) 규칙이 소리 과학인 훈민정음(訓民正音)의 비밀의 열쇠인 것이다.

 세종대왕의 창제정신을 받들어 훈민정음(訓民正音)에 감춰진 비밀의 열쇠를 열어 소리의 보물 곳간을 열어 활용한다면 한글과 다른 이상한 모양의 글자보다도 한글에 익숙해 있는 우리는 새로운 글자에 빨리 적응할 수 있으며 활자를 새로 만드는 사회적 비용도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국문학자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여기에 동참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을 뿐이다.

한글 연구회

회장 최 성철

Příloha 1:

**영어 못하는 ‘영어 공화국’**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입력 : 2007.05.02 01:08 | 수정 : 2007.05.02 03:01

●세계 최대 시장… 영어교육비 15兆 일본의 3배 달해
●영어소통 힘든 한국… ‘말하기’ 추가 이후 토플 최하위國 추락
●왜 못하나… 교실밖에선 안쓰고 실용회화 교사 부족

임신 6주째인 김선정(가명·27·서울 양천구 목동)씨는 영어 동화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김씨는 주중에는 영어 태교용 온라인 강의를 듣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영어예배를 본다. 김씨는 “아이가 영어에 일찍 노출될수록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이라며 “영어회화 학원도 다닐 예정”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영어교육은 엄마 배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영어 태교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B업체는 생긴 지 2년도 안 돼 회원이 5만 명을 넘었다. 10만원이 넘는 영어태교 동화 전집도 불티나게 팔린다. 영어태교 업체는 10개를 넘는다.

베이비시터(babysitter) 업체들도 4년제 대학 영문과 학생이나 재미교포들로 구성된 ‘아이돌보미’들을 따로 두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K 베이비시터’의 아이돌보미들은 1시간 반에 4만 5000원을 받고 ‘영어’로 3~4세 아이들을 봐준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정모(여·31)씨는 24개월짜리 딸을 월 75만 원짜리 영어 놀이교실에 보내고 있다. 정씨는 “규정상 영어를 가르치면 안 되는 공립 유치원들도 엄마들 요구에 못 이겨 영어수업을 한 지 오래됐다”며 “미술학원·운동학원도 원어민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부모들이 찾지 않는다”고 했다.



아예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 현지 유치원에 등록시키는 경우도 있다. 강채숙(여·36)씨가 지난해 여름 두 달간 아이를 미국 유치원에 보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자 다른 학부모 10여 명이 올 여름에도 가자면서 따라나섰다. 강씨는 “비용을 줄이려고 요즘은 공동구매 식으로 알뜰하게 다녀온다”고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교육에 쏟아 붓는 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그 규모를 연간 15조원으로 추산한다. 일본(5조원)의 3배다. 그나마 조기유학이나 언어연수에 드는 비용은 뺀 수치다.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초·중·고교생 수는 2001년 15만 명에서 2006년 19만 명으로 5년 새 4만 명 가까이 늘었다. 2004~2005년 전 세계 토플(TOEFL·외국인을 위한 영어인증 시험) 응시인원의 19%가 한국인이었으며, 토플·토익(TOEIC) 시험에 연간 7000억 원 이상의 돈이 나가고 있다.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출은 이처럼 폭발적이지만, 그 효과는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동아시아 경영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컨설팅’이 2003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아시아 12개국 중 영어 소통이 가장 힘든 나라였다.

2004~2005년 우리나라의 토플 성적은 전 세계 147개국 중 93위였다. 작년 9월 시험 방식이 IBT(Internet-based test)로 바뀌면서 문법 대신 말하기가 추가되자 우리나라의 순위는 111위까지 떨어졌다. 말하기 부문만 보면 134위로 거의 꼴찌에 가깝다. 회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교육이 바뀌어도 교실을 벗어나면 여전히 영어를 사용할 환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한국영어교육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중학교에서 대학교까지 10년간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영어를 공부한다. 그런데도 우리 영어실력이 뒤처지는 것은 영어가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희대 영어학부 한학성 교수는 “어려서부터 실생활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영어를 교과 과목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덴마크나 핀란드 같은 나라는 1주일에 영어 수업시간이 2~3시간에 불과한데도 국민들의 영어구사력이 좋은 나라라는 평을 듣는다고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는 지적했다. 10살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덴마크의 경우 다른 교과에서도 영어 교재를 활용해 학생들이 어디서나 영어를 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면서도 영어 능력이 뛰어난 나라의 국민들은 어려서부터 영어가 몸에 밸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전 국민의 71%가 영어를 쓰는 싱가포르는 1956년부터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했고, 1987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영어 사용을 의무화했다.

전문가들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매년 교사 1000명씩 집중 심화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2008년부터는 영어교사 임용시험에 영어 에세이, 영어 인터뷰 평가가 새로 포함된다.

그러나 교육부 방안에는 허점도 많다. 이미 1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재미교포들을 원어민교사로 활용하고는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채용실적은 미미한 상태다.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공중파 TV에 영어전용 채널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Příloha 2:

**[편집자에게] 영어 표기법 개선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만약 우리가 외국인이 우리말을 하거나 쓸 때, 세종대왕을 '새전되안'이라고 발음하거나 표기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는 그 사람을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려고 할까, 아니면 무시하려고 할까?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식하다고 경멸할 것이고, 그의 잘못된 교육을 비난하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외국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는 우리가 사람대접을 받고 높은 교육수준을 상징하는 척도다.

정확한 영어 발음과 표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간과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의 부정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표기법을 답습하는 보도매체와 최상류층 전문지식인들의 개선 의지 결핍과 무성의에 있다.

먼저 교육과 표기에 괴리가 있어 의식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보자. 교육에서는 slow를 '슬로우'로 가르치고 있는데, 사회에서 사람들은 '슬로'로 발음하고 신문도 '슬로'로 표기하면, 올바르게 배운 사람은 큰 혼란을 겪는다. 또 정확하게 영어를 배운 초·중·고교생들을 바보로, 더욱이 국제적 미아로 만드는 외래어 표기법의 실례를 몇 개 들어본다. 표기법을 답습하는 보도매체와 지식인들은 영영사전과 영한사전의 발음 부호를 무시하고 자의로 애프리카(Africa)를 아프리카로, 토머스(Thomas)를 토마스로, 로우저벨트(Roosevelt)를 루스벨트로, 더욱 가관은 태평양전쟁과 6·25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 장성, 머카서(MacArthur)를 맥아더로 표기한다. 이렇게 우리의 보도매체와 지식인들은 올바르게 배운 사람들을 당혹시키면서, 바보로 만드는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정확한 영어를 버리고 잘못된 영어발음을 자주 듣고 보면서 익히는 데에 시간과 정력을 쏟는다.

이렇게 외래어 표기법은 우리를 바보로, 더욱이 천덕꾸러기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빨리 표기법을 개선해야 한다. 표기법 말고도 고쳐야 할 또 하나의 잘못된 관행이 있다. 우리의 영한사전에는 발음 부호를 부정하는 한글 표기들이 있다. 예를 들면, 원음 어폴로우(Apollo)를 아폴로로, 다이어나이서스(Dionysus)를 디오니소스로, 에더퍼스(Oedipus)를 오이디푸스로, 그리고 플레이토우(Plato)를 플라톤으로 표기하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과 영한사전의 잘못된 표기는 정확하게 배운 영어 발음, 올바른 영어교육을 부정한다. 이 부정은 배움과 삶을 이원화한다. 이 이원화가 우리가 배움을 바탕으로 실현하고 싶은 욕망(가능성과 잠재력의 발휘, 그리고 사회발전에의 기여)을 억압한다. 보도매체, 최상류층 전문지식인, 그리고 사전 편집자는 잘못된 표기법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이 개선이 초·중·고교생들이 배운 영어 발음에 신뢰감을 주면서, 올바른 영어교육을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21/2009102101781.html>

Příloha 3:

[한글 새 문자에 대하여](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20081)

한글 새 문자에 대하여

요즘에 와서 부쩍 외국어 발음 한글 표기에 대한 논란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한글 발전에 서광이 비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작년에는 전남대 영문학과 고 지문 명예교수가 '영어 표기법 개선해야한다'는 제목으로 (2009년 19월 22일자 조선일보 A37면 참조) 현재 우리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제안하였고, 며칠 전에 울산의대 이 인철 교수는 한글 외래어 표기 도입하자면서 'f, v, z, r, th'에 대한 글자를 한글이 아닌 이상한 도안을 제시하였다.(조선일보 2010년 1월 12일자 A33면 참조)

이들은 모두 국문학과는 거리가 먼 영문학이나 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세계화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어 소리를 온전하게 한글로 표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문학계에 대하여 오죽이나 답답하면 국문학과는 거리가 먼 영문학자나 의학자들이 영어 표기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글자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겠는가?

이 인철 교수는 이상한 기호를 한글에 도입하자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전혀 모르는 의과대학 교수이므로 능히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다.

그는 지금 영어 발음 표기에 대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지금 영어 발음 표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f, v, r, l'' 등과 'th'이다.

그는 한글에는 가운뎃소리글자는 풍부하지만 첫소리글자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세종대왕은 어제훈민정음(御製訓民正音)에서 "ㅇ連書脣音之下(ㅇ연서순음지하), 則爲脣輕音.(즉위순경음) 初聲合用則竝書(초성합용즉병서), 終聲同(종성동)."이라 하여 연서(連書)와 병서(竝書)라는 규칙을 만들어 놓았다.

즉 "ㅇ을 입술소리 아래에 쓰면 입술가벼운소리가 된다. 첫소리를 합쳐서 쓰려면 나란히 쓴다. 끝소리도 같다."

또한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 합자해(合字解)에서는 "初聲二字三字合用竝書(초성이자삼자합용병서), (중략) 中聲二字三字合用(중성이자삼자합용), (중략) 終聲二字三字合用(종성이자삼자합용)(중략)"이라 하여, 첫소리, 가운뎃소리, 끝소리를 두 글자 또는 세 글자까지 나란히 써서 하나의 소리글자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은 앞으로 우리말에 없는 소리를 병서(竝書)라는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국대학 변 정용 박사는 연서(連書)와 병서(竝書) 규칙에 따라 생성되는 소리글자는 약 400억 개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인철 교수는 'r'에 대한 글자를 제안하였는데 그렇다면 'l'에 대한 글자는 'ㄹ'로 대응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r'은 반혓소리요, 'l'은 혓소리로 'l'은 'r'에 대한 된소리인 것이다.

병서(竝書) 규칙에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붙여 쓰는 각자병서(各字竝書)와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붙여 쓰는 합용병서(合用竝書)라는 규칙이 있다.

각자병서(各字竝書)는 된소리를 만들 때 쓰는 것이고, 합용병서(合用竝書)는 우리말에 없는 새로운 소리를 만들 때 쓰는 규칙이다.

이 규칙에 따른다면 외국어 발음 표기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간단히 풀린다.

'r'은 현행대로 'ㄹ'로 표기하고 'l'은 'ㄹ'의 된소리인 각자병서(各字竝書) 'ᄙ'로 표기하면 간단히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f'에 대해서는 합용병서(合用竝書) 규칙을 활용하여 'ᅋ'. 'ㅍㅎ', 'ㅍㅇ'. 'ㅎㅍ', 'ᅘ'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하면 될 것이며. 'v'는 'ᅄ', 'ㅂㅇ', 'ᇥ'. 'ㅎㅂ'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 될 수 있다.

이 인철 교수는 th에 대한 글자를 하나만 제시하였는데 th에는 'ð'과 'Ɵ'의 두 가지 소리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이것도 합용병서(合用竝書)를 활용하여, 'ð'는 'ᄯ', 'ㄷㅅ', 'ㄷㅎ', 'ㅎㄷ' 가운데 하나를, 'Ɵ'은 'ᄹ', 'ㅌㅅ', 'ㅌㅎ', 'ㅎㅌ' 가운데 하나를 활용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대한제국 때 쓴 것으로 추측되는 문서를 보면 'l = ᄙ', 'f = ㅍㅎ', 'v = ᇥ', 'ð = ㄷㅅ'. 'Ɵ = ㅌㅅ'으로 쓴 기록이 남아 있다.

1930년대 잡지에는 'f'를 'ᅋ"의 합용병서(合用竝書)를 쓴 기록도 남아 있다.

이와 같이 합용병서(合用竝書)를 활용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말소리는 모두 정확하게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소리 과학이며 소리의 보물 곳간인데 우리 국문학자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규칙을 활용하려면 현행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고쳐야 하는데 국문학자들은 이 두 가지 법을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것이라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실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은 일제 강점기에 만든 것으로 일제의 잔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세종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 국어원에서는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면 백성들이 크게 혼란을 일으킬 것이며 활자를 새로 만들어야하는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실상은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고치지 않으려 기피하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병서(竝書) 규칙을 활용한다면 한글에 익숙한 우리들은 쉽사리 새로운 글자에 익숙해 질 수 있는 동시에 활자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사회적 비용도 절감(節減)할 수 있다.

변 정용 박사는 병서(竝書) 규칙에 따라 자유로이 글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이 방식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computer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활자를 새로 만들어야할 필요도 없어서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이 방식을 채택하려면 <한글 맞춤법>을 따라야하는 한글 word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결국은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 자모의 수를 40개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해제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글 연구회

최 성철

한글 연구회 누리 집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1320081>

Příloha 4:

[언어](http://bab2min.tistory.com/category/%EC%96%B8%EC%96%B4)

## [f 소리를 ㆄ로 적자?](http://bab2min.tistory.com/247)

2012/11/07 14:14 | Posted by 적분 ∫2tdt=t²+c

한글에 새로운 문자를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geul.or.kr/board/view.php?id=bg01&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504>)

위 주장은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가져온 것이고, 서울아산병원 울산의대 이인철 교수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학자들과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외국어 발음 표기를 위해서 새로운 글자를 추가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f] 소리를 위한 ㆄ 글자를 추가하자는 것인데, (이는 옛한글을 부활시켜서 사용하자는 것.) 과연 새로운 문자를 추가하는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 고민해봅시다.

**1. 외래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커피**'는 어떻게 읽어야할까요?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커피]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khʌphi] 정도가 되려나요. 그런데 이렇게 발음하면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봅니다. 그래서 ph대신에 f로 발음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커피**'를 [khʌ.fi]라고 발음하겠지요. 프랑스를 발음할 때도 '**프랑스**'라 쓰고서는 [fɯ.raƞ.sɯ]라고 **f 발음을 살려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나운서들인데,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하는 아나운서들은 한국어에 없는 f발음 마저 정확하게 챙겨서 발음하고 있는거지요. (무엇보다 표준 발음법을 지켜야할 아나운서들이 이런 파행을...) 근데 또 재미있는건 아이폰4를 발음할때를 보면, 폰은 [pon]로 4는 'four'로 발음한다는 것이지요. 폰과 4는 둘다 f발음으로 시작하는데 말이지요...

원음을 살려서 발음하는 것은 좋은일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래어란 외국어에서 유입되어 이미 한국어화된 단어들을 가리킵니다. 한국어에 들어와버린 **외래어는 한국어 화자가 발음하기 쉽도록 소리값이 한국어에 맞춰서 변하게 됩니다**. '텔레비젼', '티비'를 말할때 누구도 ㅂ을 v로 신경써서 발음하지 않습니다. 굳이 원음을 살려서 발음하겠다고 하면 그건 외국어를 하는것이지 한국어를 하는게 아니게 되는거지요.

**2. 왜 [f] 만 추가하면 충분한가?**

아나운서들은 f발음은 꼭꼭 챙겨서 하지만, [r]이나 기타 영어에 존재하는 발음들을 딱히 신경쓰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어에 있는 권설음 역시 신경쓰지 않죠. 세계의 수많은 언어에 있는 다양한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는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외래어를 정확하게 적기 위해서 [f]에 해당하는 문자를 추가해야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커피'에서 ㅍ만 [f]로 발음하면 영어발음과 같아진다고 생각하나봅니다.

**'커피'를 [khʌ.fi]라고 발음해봤자 역시 원음을 살리지 못합니다**. 실제 발음은 [ka.fi]에 더 가까운걸요. 한국인들은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분못하기 때문에 기식성으로 이를 구별하려고 시도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원음과 달라지는것이지요. 만약 문자를 추가할거면 f, v, r, sh 등 말고도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분할수있는 문자들을 추가해야할 겁니다.

그런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프랑스를 [fɯ.raƞ.sɯ]로 발음하는 사람들은 원음 따라갈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한국어는 음절핵 하나에 자음이 최대 2개까지만 붙을수 있는 제한이 있어서 France 같은 단어를 발음할때 임의로 모음 [ɯ]를 넣어서 발음합니다. **정확한 발음을 위해선 이런 군더더기 모음을 빼버려야하죠**. 근데 그러면 'ㅍ랑ㅅ'라고 적어야할려나? 모아쓰는 한글의 특성상 모음없이 자음만 있는 글자는... 참 애매하죠. 게다가 이렇게 적으면 한 글자에 1음절이라는 규칙마저 깨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어에는 없는 수많은 모음들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에는 산재**되어있습니다. **apple**에서 **a**는 [애] 일까요 [아] 일까요? ㅐ도 아니고 ㅏ 도 아닌 모음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글자가 필요하겠네요... 이건 뭐 끝도 없습니다. 한글 자모가 100개가 되어도 힘들거같네요.

**3. 새로운 문자를 추가한다고 언중들이 정확한 발음을 하게 되는가?**

**파일(file)과 파일(pile)을 똑같이 발음해서 구분안되는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해결할수 있다는 거지요. 아마 저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말(馬)과 말(言)을 구분못하고, 눈(雪)과 눈(目)을 구분못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새로운 문자를 추가해서 pile은 '**파일**', file은 '**fㅏ일**'로 적게 됐다고 칩시다. 언제 '파일'을 쓰고 언제 'fㅏ일'을 써야할까죠? **현재 한국어에서 f는 음소로써 작용하지 못합니다. ㅍ의 변이음(allophone)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니, 당연히 최소대립쌍(minimal pair)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말은 즉 ㅍ을 발음할 자리에 f를 넣어도 갸우뚱 하고 만다는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파일'과 'fㅏ일', '팬'과 'fㅐㄴ' 등을 구분해서 적기 위해선 영어교육이 필수가 됩니다. **한글 맞춤법을 위해서 영어를 공부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것이지요**.

**4. 어디 원음으로 적을 것인가?**

한글로 원음을 정확하게 표기하겠다는 생각은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입니다. 어떤 발음이 원음이지요? 영어만 하더라도 크게는 영국식, 미국식 발음이 있고, 세세히 나누면 지역마다 방언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다 보니 사용지역에 따라서 발음법도 다양해져버렸지요. 인도 영어, 필리핀 영어 등등 발음법은 정말 각양각색입 니다. 어디를 원음으로 잡아야할까요? 사용인구가 제일 많은 미국식 발음으로? 아니죠. 사용인구가 많은건 인도식 발음이겠죠.

**미국의 특정지역 발음법을 보편이고 객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일까요**? 이 역시 고민해볼만한 문제군요. (그리고 다른 언어도 아니고 오직 영어만 저렇게 정확하게 표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역시 재미난 일입니다. 전국이 영어에 미쳐있음.)

**5. 한글의 목적은 무엇?**

이런 주장을 하는 그 바탕에는 한글의 쓰임새에 대한 혼란이 있는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고, 못 적는 발음이 없다고 배워왔는데, 영어를 공부하고 또 다른 외국어들을 공부해보니깐 그게 아닌것이지요. 그래서 한글에 대해 실망하고서는, **한글을 개량해서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것** 아닐까요?

**한글은 전세계의 모든 말소리를 적기 위한 문자가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은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적기위한 문자입니다. 한국어를 잘 적어낼수 있으면 됩니다. 한글은 충분히 과학적이고, **한국어에 있어서는 못 적는 발음이 없습**니다.

**정확한 발음을 적는다는 것은 허구적인 일**이라는 것 또한 알아야합니다. 한 언어라고 해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게 발음될수 있습니다. **어떤 한국인도 '일요일'을 모두 같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어제 발음한 '일요일'과 오늘 발음한 '일요일'은 같지 않지요. **인간의 인지능력이 변이음들을 하나의 음소로 매핑(mapping)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발음들이 같은 음소 배열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수 있는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자란 그 문자가 표현하는 언어에 존재하는 음소들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써 충분히 완벽한 것**이지요.

<http://bab2min.tistory.com/247>